

프로바둑계에도 '먹이사슬' 있다

프로 바둑계에도 먹이사슬이 있을까? 야구 등 모든 프로 경기가 그렇듯 바둑계에도 특정 선수에게 유독 강하거나, 맥을 끊는 선수들간 힘의 역학 관계가 있다.

먼저 루이나이웨이(이하 루이)·박지은 9단, 조혜연 7단이 서로 잡고 잡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바둑계는 그동안 루이의 독주대였다. 이 때문에 별다른 먹이사슬이 없었다. 생애 통산 25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에서만 6차례 우승을 차지한 세계 여류바둑계의 최강자이다.

중국기원이 오는 10월께 벌어지는 제1회 세계두뇌스포츠대회에서 루이가 여자 개인·단체전을 무조건 훨씬 것으로 보고 루이를 집중 훈련시킬 계획이다. '출전=메달'이라고 단정지를 만큼 그녀의 독주가 계속됐다는 증거다.

하지만 여자 바둑의 제왕 루이가 최근 흔들리면서 미묘한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루이가 원양부동산에서 박지은은 9단에 패하면서 박지은, 조혜연 등 세 사람 사이에 오퍼한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됐다.

'여전사' 박지은은 루이를 상대로 원양부동산배 결승에서 첫 판을 내주고도 이후 2연승을 거두며 짜릿한 역전승 주인공이 됐다. 단판 승부가 아닌 차례 맞불이 승자를 정하는 경기에서 루이가 패한 것은 지난 2004년 여류민인전 이후 4년 만이다.

루이의 전적으로 박지은이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박지은은 지난 2006년 이후 루이를

철녀 루이, 박지은 만나면 “음메 기 죽어”

‘이세돌 킬러’ 박영훈은 백홍석에 맥 못춰



여자 바둑계의 먹이사슬, 루이나이웨이·박지은·조혜연(사진 왼쪽부터)이 서로 잡고 잡히는 삼각 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아비 오로 제공)

상대로 4승3패로 앞서고 있다.

루이는 조혜연에 유독 강하다. 원양부동산 배의 역전패를 분풀이(?)라도 하듯 여류민인전에서 조혜연 7단을 2-0으로 완파, 타이틀방어에 성공했다.

루이는 최근 조혜연에게 9연승째를 기록하며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금씩 떠올라지고 있는 여자 바둑 먹이사슬은 조혜연-박지은 사이에서 완성된다. 조혜연은 최근 박지은에게 11승4패로 월등히 앞

서고 있다.

박지은이 루이에 강하고, 루이가 조혜연을 압도하고, 조혜연은 다시 박지은을 앞서고 있다. 완벽한 삼각 먹이사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15년 이상 바둑계를 독주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이창호 9단 시대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남자 바둑계에도 천적 관계가 있다.

현재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세돌 9단은 박영훈 9단에 자주 발복이 잡혔다. 지난해 GS칼텍스배에서 박영훈이 2패 후 3연승으로 타이틀을 차지하며 ‘이세돌 킬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세돌을 상대로 도전기에서 승리한 기사도 박영훈이 유일하다. 지난해 두 기사 간 전적은 4승4패로 호각세. 올해에도 이세돌에게 첫 패를 안긴 주인공은 박영훈이다.

박영훈은 백홍석 5단만 만나면 맥을 끊는다. 백홍석은 지난해 박영훈에게 2승1패로 앞섰다.

올해 10연승을 달리며 부활 신호탄을 쏜 이창호 9단은 강동윤 7단(19)을 만나면 작아진다(?).

강동윤은 지난해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이창호를 상대로 타이틀을 따내는 파란을 일으켰다. 강동윤은 지난해 이창호와 여섯 차례 싸워 4번을 이겼다.

돌 한 수에 판세가 달라지는 프로 바둑에 영원한 먹이사슬이 존재할 순 없겠지만 이들 간에 형성된 묘한 힘의 균형은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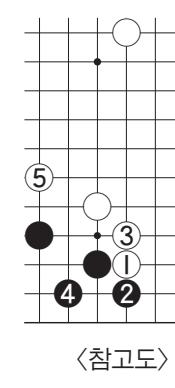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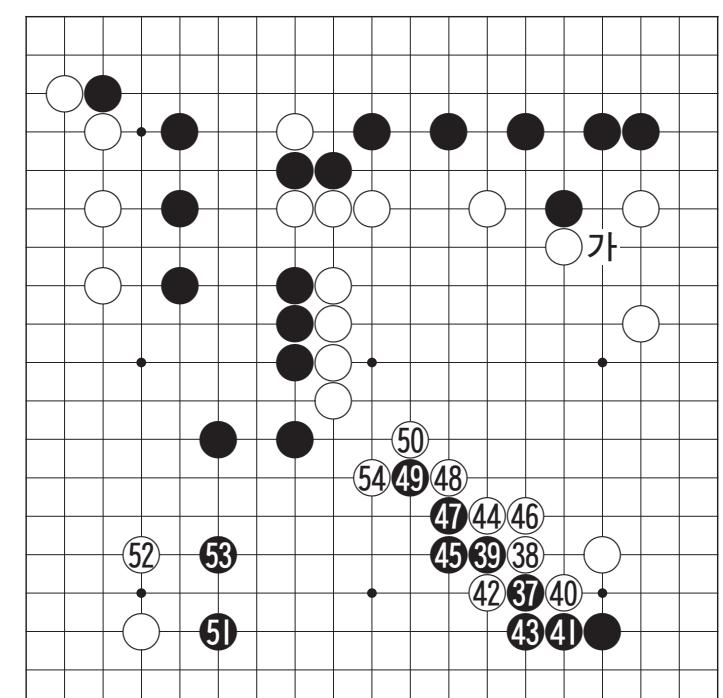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5회 KBC사장배

유단자부
결승전

우격다짐의 짐짓기

4보(37~54)
(월봉초등 6)



〈참고도〉

남아있어 우변의 백 집이 그리 커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백 38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불리고 3으로 느는 평범한 점석대로 둘 다음 5로 자연스럽게 우변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두는 것이 한쪽에 몰이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긴 바둑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건희군도 전례 불만이 없다는 듯이 흑 45까지 고분고분 받아주고 있다. 그런 다음 흑 49로 젖혀간 것은 백이 ‘나’로 받아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선민호군이 밀리지 않고 강력하게 50으로 젖혀오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54로 얻어맞는 아픔을 감수하고 흑 53까지 일단 집을 차지하고 보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신세대가 앞장서자”

北에 이는 ‘바둑 열풍’

문수바둑장 등록 70% 아마 1단 이상

북한에 바둑 열풍이 불고 있다.

제일본 조선인총연합회는 1일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북한 신세대들 사이에서 바둑을 두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열풍의 진원지는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있는 문수바둑장이다.

바둑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지난 2003년 문을 연 이 바둑장은 등록한 바둑인만 200명, 이 중 70%가 아마추어 1단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평양기계대학, 조선체육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외과대학 등이 바둑장 인근에 있는 관계로 등록자의 80%를 20~30대 대학생이 차지해

15세 박정환 “신인왕 손대지 마!”

비씨카드배 흥민표 누르고 4강

올해 15살이 되는 박정환 2단이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다.

박정환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18기 비씨 카드배 신인왕전 8강전에서 흥민표 6단을 상대로 115수만에 흑시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박정환은 적극적인 행마로 세를 넓혀나갔고, 우연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며 시종 여유 있는 형세를 이끌었다.

우연 전투에서 크게 패한 흥민표는 이렇다 할 역전의 빌미를 찾지 못한 채 마지막 초읽기에서 시간폐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박정환 2단은 김승재 조단과 결승 진출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연구생으로 바둑에 입문한 박정환은 지난해 한국바둑리그, 제7기 오스람 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 제3회 원익배 십 단전 본선에 출전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으로 신예기전 중 최고의 규모다. 제한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민진, 김선미 꺾고 여류국수전 준결승 올라

이민진 5단이 여류국수전 준결승

전에 올랐다. 이민진은 지난달 28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3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본선 8강전에서 이민진 5단이 김선미 2단을 209수만에 흑불계로 꺾었다.

이로써 금년 첫 승을 올리면서 준결승전에 합류한 이민진 5단은 차기 대회 본선 시드를 배정받게 됐다. 이민진 5단은 금년 1승 1패를 기록했으

며, 김선미 2단은 1승 2패가 됐다.

준결승전에는 이민진 5단을 포함하여 박지은 9단, 김혜민 5단이 올라와 있으며, 지난 대회 우승자인 루이나이웨이 9단과 권효진 5단의 승자가 최종 준결승전 맨바로 가세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로 진행된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되며 상금은 우승 1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판매국(062)220-0551

애 가

학동 천대원 응급실 및 의원 태극극제과 2층
밀링·생체팀, 음대구탕, 복통·자리·생선초밥
고객서비스의 일상진료문진
☎(062)226-6617

보길도죽이야기

두암동 광주병원 정문 앞
영양간강죽, 아찌죽, 해물죽, 전복죽, 각종죽

☎(062)266-5560

엘 사랑 헤어

동구 거리동 흠풀러스 옆 2층
매직필 카트, 염색, 블라인더리, 모발감리
유형스토일 헤어샵
☎(062)222-1352

대성 카센타

북구 양신동 양신택지자구 LG자이 근처
경정비 오일교환 터미널리더리
지동지용품코팅 슈퍼마트
☎(062)572-3267

영진 부동산

북구 용봉동 대신피크워
전세·월세·주택 매매 전문
대표 김 영 수
☎(062)266-7409

한라 토탈장식

서구 능성동 656-54
깔고미, 우드룸, 활터방, 큐비, 벽지
데코타일, 긴화마루
☎(062)362-7007

천상동자

증흥동 흥동 초등학교 옆 일방로
사주, 궁합, 신수탁일 영으로 봅니다
☎(011)809-9723

동양 철학원

동구 블로동 밀레오리 건너 수성 노인당
작명, 사주, 관상, 신수, 택일
☎(062)224-7687

통문장 영어교실

문통대주@와광주영원 중간구원과 2층
초·중·고 수학 단과반 수강생 모집
대표 신승철
☎(062)268-7708

모노텔 모텔

동구 계림동 미시화 B/D 옆 2층
경마방송, 초고속인터넷, 대형주차장
대표 조주현
☎(062)222-7781

소리나리울 악학원

북구 용두동 용두주공@후문앞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기타 등
대표 추미숙
☎(062)571-7715

경도 카클리닉 세치장

광신구 육동 평동 시민회관 2층
임금, 건물, 주택, 세무, 경매, 각종 부동산 컨설팅
대표 문재운
☎(062)943-0101

한우 하우스

광산구 우신동 시민회관 2층
개장 백년 전통 한우 전문점
대표 장완순
☎(062)232-8472

대성 기원

북구 우신동 무정장 한우 전문점
대표 안만식
☎(062)514-4409

엄창난 아구해 봄점

북구 일곡동 834-1
단체석원비, 대체석원비
대표 임순자
☎(062)576-3335

다시마 전복

북구 오치동 90-11 북부소방서
원도 금길도 다시마 전복 신작승 도매
대표 임형율
☎(011)926-3448

누령 송아지

북구 유동 16-11
생고기 전문 떡갈비
대표 정성모 모시겠습니다
☎(062)529-2121